

2020년 4월 5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17)

<도입>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두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족식과 성만찬이었습니다. 그 중 오늘 세족식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1]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먼저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발을 씻기셨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버지께로 가야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할 절정의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강조합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는 공동번역에서 ‘더욱 극진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감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식사 중에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발 씻기는 사람은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일을 자청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주님은 위사람 행세도, 을의 악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갑의 우월감도, 을의 비하감도 뛰어 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구원 사역을 계승할 때 사역의 중심 가치가 됨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서로 발 씻어주는 일로서 섬기고 돌보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슴으로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쉽게 들리지만 훗날 성령 받고 사랑의 감동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6절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여쭙을 때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은 섬김과 돌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필수적 영적 자질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예수님과 함께 나눌 몫

세족의 과정에서 베드로와의 대화가 흥미를 끕니다.

8절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 9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9절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 10절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그럴 필요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다는 아니라고 하심)

주님은 발만 씻어주는 것이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9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원어를 참고하면 ‘예수님과 나눌 몫이 없다’, 즉, 함께 나눌 아버지의 상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 공동상속을 의미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요 10:10,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깊고, 넓은 차원의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지닌 생명의 풍부함, 나눔, 헌신을 가능케 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의미를 알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종의 겸허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눔 생명의 부요한 상속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생의 부요를(진선미) 누리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새롭게 열어 주시는 구원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감동받고 나눔 수 있는 풍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식구들과 사회를 위한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오가는 것을 보면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결단의 행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돌봄과 공감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우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청년들, 경제의 부진으로 어려운 교우들, 서로 섬기고 돌보아 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나눔 하늘의 상속을 얻는 길입니다. 17 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음의 깊은 뜻을 체득하셔서 하늘의 복이 풍성한 교회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며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두가 주님과 함께 누릴 하늘의 상속의 복에 동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2.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섬김과 돌봄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찰하며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